

## 우리성 관계에서는 상처받기도 쉽다!

배 재 창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Diliman

한 규 석<sup>†</sup>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우리성 관계에서는 상대에게 배려 받지 못할 경우 자존감이 훼손될 수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경우 개별성 관계에 비해 자존감이 더 크게 손상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신과 상대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암묵적 연합검사를 제작했다. 연구 1에서는 우리성과 개별성 점화 후 상대에 대한 암묵적 태도가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상대에 대한 거리감이 우리성 점화 후 감소한 반면 개별성 점화 후에는 유의수준에 가깝게 증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 2에서는 점화로 우리성 및 개별성 관계를 활성화시킨 후 실험협조자를 통해 참여자에게 세 처치(보상의 차등분배, 부정적 평가, 통제조건) 중 하나를 가한 다음, 암묵적 자존감 및 거리감의 변화를 확인했다. 연구 결과, 배려 없는 차등분배 이후 우리성 관계에서는 자존감이 손상되었고 거리감도 통제조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개별성 관계에서는 자존감이 손상되지 않았고 거리감도 증가하지 않았다. 한편 부정적 평가 이후 우리성 관계에서는 자존감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거리감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개별성 관계에서는 자존감과 거리감 모두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우리성 관계에서는 상대의 부정적 평가는 물론 배려 없는 행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존감이 상하고 거리감이 증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개별성 관계에서는 상대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배려하지 않더라도 자존감과 거리감이 크게 동요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대인관계에서 배려 받고 싶은 기대수준에 따라 자존감이 좌우될 수 있음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우리성, 개별성, 자존감, 거리감, 암묵적 연합검사

<sup>†</sup> 교신저자: 한규석,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E-mail: ghan@jnu.ac.kr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로 구성되는 자아개념이다(Rosenberg, 1962). 자존감은 능력의 유무(Rosenberg, Schooler, Schoenbach, & Rosenberg, 1995), 과제의 성공 여부(박승진, 최혜라, 이훈진, 2011; Greenwald & Farnham, 2000), 성격적 특성(Greenwald et al., 2002), 사회비교(Taylor & Lobel, 1989; White & Lehman, 2005) 등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자존감은 고양되거나 유지될 수 있지만,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에는 자존감이 손상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상황에서는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내용 역시 자존감에 반영되며, 그 영향은 자신과 상대방이 어떤 관계에 놓여있는지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Markus & Kitayama, 1991).

대인관계는 상대방과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우리성 관계와 거리가 먼 개별성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성 관계에서는 자아가 관계적 측면으로 활성화되지만, 개별성 관계에서는 자아가 개별적 측면으로 활성화된다(Brewer & Gardner, 1996). 우리성 관계에서는 상대방에 본인을 관여시키면서 주관적으로 정서와 심리를 경험하게 되며, 상대방은 본인과 마찬가지로 의지를 지닌 주체적 인간으로 간주된다. 이 관계가 성립되면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게 된다. 반면에 개별성 관계에서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경험하지만, 인간사적으로 휘말리지 않으며 상대방을 객체로 대하는 심리가 작동한다. 이 관계는 사람들 사이의 경계가 뚜렷하여 독립적 상태를 유지하므로 자신 이외의 대상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정서를 공유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배려받으리라 기대하지 않는다(최봉영, 2012, pp. 38-40; 최상진, 1997; 한규석, 최상진, 2008). 이런 차이로 인해 우리성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며, 평가결과가 부정적일 경

우 자존감이 훼손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고 거리감이 큰 개별성 관계에서는 타인의 평가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성 관계에 비해 감소하게 된다(Markus & Kitayama, 1991).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현실적응에 적합한 상태로 볼 수 있다(Greenberg et al., 1992; Rosenberg et al., 1995). 그러나 자존감의 손상은 자신을 부정하고 존재가치가 추락하도록 작용하기에 현실에서 부적응을 초래하게 된다(Campbell, 1990; Steele, Spencer, & Lynch, 1993). 실제로 자존감이 손상된 사람들은 강한 분노와 공격성을 표출하게 되어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Aspinwall & Taylor, 1993; Baumeister, Tice, & Hutton, 1989). 사람은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나 타인의 평가가 부정적일 경우 자존감이 상할 수 있다(김민정, 현명호, 2010; 박승진 등, 2011; Dijksterhuis, 2004). 인신공격에 가까운 부정적 평가는 심리적 거리와 무관하게 모든 관계에서 자존감을 손상시킬 수 있다(최상진, 2011, pp. 23-24). 한편 우리성 관계에서는 인신공격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기대하거나 상대방을 아껴 준 것에 비해 상대방으로부터 관심이나 사랑을 작게 받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도 자존감이 상할 수 있다(최상진, 2011, p. 24; Choi, Han, & Kim, 2007).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은 실망했다고 표현하며, 상대방에게 섭섭함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이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평가 이외에 상대방에게 실망하는 상황에서도 자존감이 상할 수 있다.

1) 실망의 사전적 의미는 “일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거나 기대에 어긋나서 마음이 상함”으로(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p. 3884),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실망에는 기대만큼 관심이나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 자존감이 상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 부정적 평가로 인한 자존감 감소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의한 자존감의 감소를 살펴보았다(박승진 등, 2011; 염시창, 박현주, 2005; Dijksterhuis, 2004; Greenwald & Farnham, 2000 등). 이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많이 받을수록 여고생들은 자존감이 떨어졌고(염시창, 박현주, 2005),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거절당했던 사람들은 자존감이 감소했다(김민정, 현명호, 2010; Greenier et al., 1999). 이 조사연구들은 Rosenberg(1965, pp. 305-320)의 척도로 명시적 자존감을 측정하여 부정적 경험과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한편 실험상황에서 참여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후 자존감의 감소를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부정적 평가를 전후로 암묵적 자존감을 반복 측정하여 비교했다(박승진 등, 2011; Dijksterhuis, 2004). 이러한 집단 내 설계는 처치의 인과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명시적 검사를 사용하여 자존감을 반복 측정하면 참여자는 처치 전 결과를 기억하여 일관적으로 제시하거나(Gawronski & LeBel, 2008; Suh, 2002), 자존감을 높게 보이도록 왜곡할 수 있다(Bosson, Swann, & Pennebaker, 2000). 그러나 대상에 대한 태도가 강할수록 반응시간이 빨라진다는 암묵적 사회인지이론(Greenwald & Banaji, 1995)에 바탕한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Greenwald, McGhee, & Schwartz, 1998, 이하 IAT)는 반복 측정하더라도 참여자가 자신의 결과를 알 수 없으므로 왜곡하기 어렵다. 이에 IAT를 사용한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자신과 긍정단어를 연합하여 자존감을 고양시킨 조건과 통제조건의 참여자에게 과제의 수행속도가 하위 10%에 포함된다고 부정적 평가를 제공한 후 암묵적 자존감과 기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자존감이 고양된 사람들은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통제조건의 사람들은 부정적 평가를 받고 암묵적 자존감과 기분이 모두 상했다

(Dijksterhuis, 2004). 또한 해결 불가능한 과제를 실패한 상황에서 참여자 중 하위 50%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은 결과,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참여자는 암묵적 자존감이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관계를 추구했던 참여자는 암묵적 자존감이 감소하지 않았다(박승진 등, 2011). 어려운 과제 수행 후 실패했다고 평가받은 상황에서 암묵적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은 모두 기분이 상했다(Greenwald & Farnham, 2000).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부정적 평가가 자존감을 손상시키며, 기분을 상하게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많은 연구들에서 부정적 평가로 인해 자존감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친소관계를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개별성 관계인 실험자가 참여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박승진 등, 2011; Dijksterhuis, 2004; Greenwald & Farnham, 2000). 상대방에게 존중받으리라 기대하는 우리성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는 기대를 저버린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개별성 관계에서는 상대방에게 기대를 갖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충격이 작을 수 있다(한규석, 최상진, 2008; Averill, 1983; Suh, Diener, & Updegraff, 2008). 이에 관계를 추구했거나(박승진 등, 2011), 자존감이 고양된 참여자는(Dijksterhuis, 2004) 개별성 관계인 실험자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받고도 자존감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우리성 관계인 사람이 부정적으로 평가했거나 자신의 실패를 목격했다면 자존감이 감소했을 수 있다. 비록 내외집단의 구분이 차별적 행위를 가져오지만(Tajfel & Turner, 1979),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주의 사회에서보다 내외집단을 구분하는 행동의 차이가 크다는 여러 연구결과(Barnlund, 1975; Yuki, 2003)는 그만큼 내집단사람에게 큰 기대가 작용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예컨대 남편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자신의 사진을 올렸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촌스러워 보인다고 평가하였고 아내도 원래 촌스러운 남자라고 동조하였다면, 남편은 모르는 사람의 평

가보다 아내의 평가에 더 충격받고 분노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모르는 사람과 달리 부부관계에서는 배우자가 자신을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자신이 남에게 비판받는 상황에서도 감싸주기를 기대하는데, 아내의 부정적 평가는 명백히 자신의 기대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평가라 하더라도 평가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다를 경우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친소관계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실망으로 인한 자존감 감소

한국인의 대인관계에 주목한 연구들은 상대방으로부터 기대했던 만큼의 마음<sup>2)</sup>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존감이 상하게 됨을 보여 주었다. 한국문화에서는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받고 싶은 마음의 수준이 설정되며, 상대방의 행동이 기대 수준에 못 미칠 때 심정이 상하게 된다(최상진, 김기범, 1999b). 심정이 상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비하감과 자기모멸감을 느끼게 되어 자존감에 손상을 입게 된다(최상진, 김기범, 1999a). 상대방에 대한 기대는 관계가 가까울수록 커질 수 있는데, 한국 대학생들은 부모로부터 기대를 받지 못한다고 여기거나 부모와 친한 친구에게 관심과 배려를 받지 못했을 때 실망과 섭섭함을 느끼면서 자존감이 상했다고 보고했다(김기범, 최상진, 2002; 손영미, 최상진, 1999). 또한 상대방이 인사나 이야기를 성의 없게 하고, 자신을 피하거나 공감해 주지 않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무시당한 상황에서도 자존감은 상할 수 있다(양미라, 2012).

이와 같이 우리성 관계에서 실망으로 인한 자존감 손상을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훼손되는 상황을 조사하는 데 머물러 있었

고, 아직까지 실험을 통해 검증되지는 않았다. 실생활에서는 마음을 받지 못해 실망하는 상황과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상황이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다. 우리성 관계에서 정(情)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간 교류의 역사성이 필요한데(최상진, 유승엽, 1995),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는 교류기간이 길어서 조사연구의 경우 실망했던 경험이 누적된 결과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개별적 경험으로 인한 결과는 확인하기 어렵다. 실생활에서는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기대하는 마음의 크기가 차이를 보이므로 동일한 행동이더라도 실망의 크기는 다를 수 있다. 한편 실망을 다룬 연구들에서도 관계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성 관계만 살펴보았다(김기범, 최상진, 2002; 손영미, 최상진, 1999; 최상진, 김기범, 1999b 등). 이에 우리성 관계와 달리 개별성 관계에서는 마음을 받지 못하더라도 자존감이 상하지 않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유는 개별성 관계에서도 배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존감이 상하게 된다면 실망을 우리성 관계의 문제로 국한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성 관계에서만 자존감이 상하게 된다면 우리성 및 개별성 관계에 대한 명제들이 지지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계변인을 우리성 관계와 개별성 관계로 구분한 다음 각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 및 배려받지 못함으로 인한 자존감의 변화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 자존감 손상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

사람들은 모욕과 위협으로 인해 자존감이 상하면 상대방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Kemper, 1987; Kliever, 1986). 그런데 분노는 모르거나 싫어하는 사람들보다 가족이나 친구처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Averill, 1983). 명시적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부정적 평가에 심하게 반발하며, 자기보호적인 양상을 보였다(Aspinwall & Taylor,

2) 상대방을 위하고 아껴 주는 마음<sup>2)</sup>으로, 이 마음은 한국인의 교류관계에서 화폐와 같다(한규석, 최상진, 2008). 우리성 관계에서는 마음을 교환하지만, 개별성 관계에서는 마음을 교환하지 않는다.

1993; Baumeister et al., 1989).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이 모두 높은 사람들도 부당한 평가를 받아 강한 스트레스가 유발될 경우 분노와 적대감을 강하게 표출했다(김민정, 이기학, 2014).

간접적으로 무시받아 자존감이 상한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양미라, 2012), 신뢰관계가 깨져서 자존감이 상할 경우 상대방과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고, 미워하며, 불편함을 느꼈다(최상진, 김기범, 강오순, 김지영, 2005). 아울러 한국 대학생들은 친구관계에서 상대방이 이기적이고 자신을 배려해 주지 않았을 때, 자존감이 상함과 동시에 의리가 깨지며, 상대방에게 마음을 닫고 짜증, 불편함, 및 반감을 느끼고 있었다(김기범, 김미희, 최상진, 2002).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할 때 상대방으로 인해 자존감이 상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 대한 태도 이외에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다.

#### 자존감과 거리감의 암묵적 측정

최근 실험연구에서는 자신에 대한 긍정 및 부정 기술문을 읽고 의식 상태에서 평가하는 명시적 방법보다 암묵적 방법으로 자존감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박승진 등, 2011; Bosson et al., 2000; Dijksterhuis, 2004; Greenwald & Farnham, 2000 등). 암묵적 측정은 사회정보의 처리에서 인지적 처리 용량을 최소화한 자동적 처리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며(Bargh, 1989), 정보처리의 순서에서도 의식적 처리에 앞서 자동적 처리가 지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새롭게 시도되었다(Devine, 1989). 대상에 대한 반응이 의식적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험의 흔적에 의해서 매개된다고 여기는 암묵적 사회인지이론(Greenwald & Banaji, 1995)에서는 이러한 과정의 직접적인 측정이 불가능하고 간접적인 측정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암묵적 자존감은 자아평가

에서 의식적 처리 이전에 자동적 처리가 결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개념이며(Greenwald & Banaji, 1995), 이를 산출하기 위해 대상인 자신을 긍정 혹은 부정 특성으로 처리하는 속도를 측정하였다(Greenwald et al., 1998). 상대방이 자신에게 피해를 주거나 잘못된 것은 없지만 웬지 상대방에게 섭섭함을 느끼고 자기비하감이 생겼다면, 관련 정보들을 의식적인 수준보다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암묵적 측정이 명시적 측정보다 정확할 수 있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부정당할 경우 자존감이 상하게 된다(김민정, 현명호, 2010; Greenier et al., 1999). 그런데 상대방의 행위로 자존감이 상하여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명시적으로 측정하게 되면, 자신의 평가결과가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상에 대한 태도를 암묵적으로 측정하게 되면, 참여자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자극의 의미를 변별하거나 범주화하는 과정을 부여받게 된다. 이런 과제에서 반응시간을 측정하여 태도를 간접적으로 산출하므로, 참여자는 연구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자신의 인상을 관리하는 데 신경을 덜 쓰게 된다(Fazio & Olson, 2003). 또한 상대방을 평가하더라도 암묵적 측정의 경우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참여자는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솔직하게 평가할 수 있다(Greenwald et al., 1998).

IAT(Greenwald et al., 1998)는 두 개의 대응 대상과 긍정·부정 단어를 연합하여 각 조건별 반응시간의 차이로 대상에 대한 태도의 크기를 산출하는 검사이다. IAT의 표적대상으로 자신과 상대방을 대응시킬 경우, 암묵적 자존감과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측정할 수 있다(배재창, 한규석, 2015). 암묵적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긍정특성, 상대방이 부정특성과 연합될 때 신속하게 반응한다. 이와 같이 IAT에서 태도와 반응특성이 일치하는 것을 양립조건

(compatible)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신이 부정특성, 상대방이 긍정특성과 연합되면 반응시간이 지연된다. 이렇게 태도와 반응특성이 불일치하면 비양립조건(noncompatible)이라고 한다 (Greenwald et al., 1998). 자존감을 측정하는 IAT의 각 조건에는 자신관련 자극과 타인관련 자극이 공존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표적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비양립조건과 양립조건의 차이로 자존감을 산출하였다(박승진 등, 2011; Dijksterhuis, 2004; Greenwald & Farnham, 2000). 자신과 타인에 대한 반응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실제 자기고양으로 자존감이 높게 나올 수 있지만, 타인을 혐오하는 것만으로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결함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적대상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표적대상을 구분한 결과, 사람들은 좋아하거나 추구하는 대상이 부정특성과 연합된 조건에서 반응시간이 매우 느려진 반면(배재창, 한규석, 2015; Ferguson & Bargh, 2004; Fishbach & Shah, 2006), 싫어하거나 목표추구를 방해하는 대상이 긍정특성과 연합된 조건에서는 반응시간이 지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윤혜영, 권정혜, 2011; Fazio, Jackson, Dunton, & Williams, 1995; Fishbach & Shah, 2006).

#### 우리성 관계와 개별성 관계

실제 우리성 관계와 개별성 관계인 사람들이 실험에 참여할 경우 알고 지낸 기간이나 친밀감의 차이 등 다양한 변인들을 통제하기 어렵다. 아울러 참여자에게 부정적 피드백을 제공하고 관심과 배려가 없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참여자가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에게 실험 협조자(이하 협조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더 적합하였다. 이에 개별성 관계인 모르는 사람이지만 우리성 관계처럼 만들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다. 우리성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아껴 주고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면서,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고려하게 된다. 하지만 개별성 관

계에서는 상대방을 아껴 주지 않으며 객체로 여기면서,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서로 거리를 두게 된다(최봉영, 2012, pp. 38-40; 한규석, 최상진, 2008). 실제로 우리성과 개별성 점화 후 명시적 태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한국 대학생들은 개인 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우리성 점화 후 자기고양 동기가 감소했지만, 개별성 점화 후에는 자기고양 동기가 증가하였다(김정식, 송유진, 이성수, 2008). 또한 '우리'라는 단어 점화 시 모르는 사람의 얼굴사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남'이라는 단어 점화 시에는 모르는 사람의 얼굴사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박정열, 허태균, 2006; 허태균, 박정열, 최상진, 2002). 아울러 서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성과 개별성을 점화하여 상대방에 대한 태도변화를 암묵적으로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우리성 점화 후 유의수준에 가깝게 감소한 반면, 개별성 점화 후 미미하게 증가하여 각 점화효과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배재창, 한규석, 2015).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성과 개별성의 점화를 통해 각기 다른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능함을 시사하였다.

우리성 관계와 개별성 관계는 마음을 교환하고 싶은 욕구 및 기대 수준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우리성 관계에서는 상대방과 마음을 교환하고 싶은 기대가 크기 때문에, 기대가 좌절되거나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부정정서를 느끼게 된다. 반면에 개별성 관계에서는 그러한 기대가 없거나 작아서, 기대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좌절을 경험하지 않으며 부정정서는 우리성 관계에 비해 덜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부정적 평가와 달리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배려하지도 않는 처치가 가능하도록 실험상황을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두 사람이 투입한 능력과 노력이 다른데 공동 작업으로 획득한 보상을 분배하는 상황에서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똑같이 배분했다면 기여도가 낮은 사람은 배려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에서 기여한 만큼 불균등하게 차지한다면 기여도가 낮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배려하지도 않은 것이 된다. 이러한 분배상황에서 미국인과 노르웨이인은 기여한 만큼 차지하는 형평분배를 선호했다(Austin & Walster, 1974; Cappelen et al., 2014; Tabibnia, Satpute, & Lieberman, 2008). 이에 연구자들은 긍정하고 합리적 성향으로 인한 결과로 보았지만, 분배당사자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두 개별성 관계에 놓여 있었다. 한국인도 모르는 사람과 보상을 분배하는 상황에서 형평분배를 선호했지만(장성수, 1985), 상대방이 친구인 경우에는 기여도와 무관하게 똑같이 차지하는 균등분배를 선호했다(박세영 & Harrison, 1998). 아울러 한국인 중 집단주의자들은 개인주의자들에 비해 균등분배를 더욱 선호했다(고재홍, 2001). 중국인 역시 관계에 따라 균등분배에 대한 선호가 차이를 보였는데, 친구끼리는 균등분배를 선호했지만 모르는 사람과 분배할 경우에는 균등분배를 선호하지 않았다(Hui, Triandis, & Yee, 1991; Leung & Bond, 1984).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해볼 때 우리성 관계에서는 성과의 차이보다 상대방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두 사람의 조화를 우선하고 불만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균등하게 분배할 가능성이 높다(오성호, 2003; 장성수, 1984; Leung & Park, 1986). 그러나 자신을 우선시하는 개별성 관계에서는 성과의 차이를 야기한 노력 및 능력의 차이에 주목하여 형평 분배할 가능성이 높다(Austin & Walster, 1974; Cappelen et al., 2014). 이와 같이 우리성 관계에서 균등분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개별성 관계보다 높다고 가정할 때, 균등분배에 대한 기대 역시 우리성 관계에서 높을 것이다. 균등분배를 기대하는 우리성 관계에서 기대와 달리 상대방보다 적은 몫을 받게 되면 배려받지 못해 자존감이 상하고, 상대방에게 서운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개별성 관계에서는 균등분배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성과에 따라 차등 분배받더라도 자존감이 상하지 않고, 서운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개인의 능력과 관련된 부정적 평가는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면서 자존감을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관계의 차이와 무관하게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된다(최상진, 김기범, 2000; 최상진, 유승엽, 1992). 상대방의 행동을 도움이나 위해로 구분하는 것은 개별성 관계에서 주로 나타나고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성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신도 배려받기를 기대하므로 부정적 평가는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동으로 볼 수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비판이나 비난으로 와 닿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부부관계에서 비난이나 부정적인 귀인양상은 결혼 만족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김진숙, 2011; 박영화, 고재홍, 2005). 부정적 평가로 인한 자존감 손상 및 적대감의 증가는 우리성 관계에서 개별성 관계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

#### 연구 목적과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인관계에서 작용하는 기대에 어긋나는 상대방의 행위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이 개별성 관계와 우리성 관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암묵적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IAT를 제작하였다. 연구 1에서는 점화를 통해 우리성 혹은 개별성 관계가 조성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배재창과 한규석(2015)의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우리성 점화 후 더욱 긍정적으로 바뀌고, 개별성 점화 후 더욱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차별화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검증된 점화방법으로 참여자와 협조자에게 우리성 관계 혹은 개별성 관계를 활성화시킨 후 두 사람이 공통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협조자가 보상을 분배하면서 참여자를 배려하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한 후 참여자의 자신 및 상

대방에 대한 태도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들에 근거하여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는데, 개별성 관계는 차등분배 및 부정적 평가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고 영가설과 일치하리라 예상하여 생략하였다.

**연구 1)**

**가설 1:** 점화조건에 따라 상대방과의 거리감이 변화하는 양상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연구 2)**

**가설 1:** 우리성 관계에서 차등분배 받게 되면 자존감은 손상되고 거리감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2:** 우리성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면 자존감은 손상되고 거리감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3:** 차등분배로 인한 자존감 손상과 거리감 증가는 우리성 관계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4:** 부정적 평가로 인한 자존감 손상과 거리감 증가는 우리성 관계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 1**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배재창, 한규석, 2015)의 결과를 재검증하여, 점화를 통해 우리성 관계 혹은 개별성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상대방에 대한 평가에서 조건 간 차이가 확인된다면 점화된 내용에 따라 상이한 관계가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자기’와 ‘파트너’를 표적으로 대응시킨 IAT를 제작했다. 참여자는 1차 IAT검사를 수행하여 기저선을 측정 후 선행연구와 동일한 점화과제를 작성하고서 2차 IAT검사를 수행했고, 점화를 전후로 상대방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방 법**

**실험 참여자**

4년제 대학에서 심리학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100명(남자 35명, 여자 65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는 보상으로 가산점을 받았으며, 2명씩 나란히 앉을 수 있는 PC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과 짝이 되도록 남녀 구분 없이 무선 배정되었다.

**실험 설계**

점화조건(집단 간: 우리성, 개별성)과 반복측정(집단 내: 점화 전 1차 IAT검사, 점화 후 2차 IAT검사)으로 구성된 2X2 혼합 요인 설계로 구성하였다. 우리성 점화조건에 46명(남자 17명, 여자 29명), 개별성 점화조건에 54명(남자 18명, 여자 36명)을 배정하였는데, 실험에 참여한 순서가 홀수 번째인 참여자집단은 개별성, 짝수 번째인 참여자집단은 우리성 점화조건으로 무선 배정하였다.

**점화 과제**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사진을 제시하여 우리성(어깨동무한 쌍둥이, 시각장애인과 안내견, 엄마와 아기) 혹은 개별성(혼자 달리는 사람, 직장인의 경쟁, 혼자 배낭여행하는 사람)을 쉽게 연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성의 경우 관계성을 떠올릴 수 있도록 두 대상이 마주하는 자극이 사용되었다(Brewer & Gardner, 1996). 제시된 조건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내용을 3분 동안 기록하도록 과제를 구성하였다(배재창, 한규석, 2015, 그림 1 참고). 실험에서는 점화과제를 인쇄하여 1차 IAT검사 측정 이후 3분 동안 제시하였다.

**암묵적 연합검사**

긍정·부정 특성단어 20개와 자신에 해당하는



① 특성변별	② 표적변별	③ 조합-연습	④ 조합-실전	⑤ 역표적변별	⑥ 역조합-연습	⑦ 역조합-실전
긍정* *부정	자기* *파트너	자기* 긍정* *파트너 *부정	자기* 긍정* *파트너 *부정	*자기 파트너*	*자기 *부정 파트너* 긍정*	*자기 *부정 파트너* 긍정*
20시행	20시행	20시행	41시행 <sup>3)</sup>	20시행	20시행	41시행

그림 1. 자기와 파트너를 대응시킨 암묵적 연합검사의 절차  
(전체 7블럭 182시행으로 구성. \* 표시는 반응 방향)

‘자기’ 및 상대방에 해당하는 ‘파트너’를 표적으로 포함하는 IAT를 ‘Inquisit-3.0.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긍정·부정 특성단어로는 배재창과 한규석(2015)이 선정한 단어 20개를 사용하였다. 긍정성 척도에서 1점은 ‘매우 부정적’, 7점은 ‘매우 긍정적’이었는데, 긍정단어로 ‘행복’, ‘사랑’, ‘평화’, ‘기쁨’, ‘건강’, ‘감사’, ‘희망’, ‘신뢰’, ‘생명’, ‘미소’ 등 10개를 사용하였다(긍정성 평균 = 6.38,  $SD = 0.67$ ). 부정단어로 ‘폭력’, ‘전쟁’, ‘질병’, ‘불행’, ‘불신’, ‘배신’, ‘절망’, ‘구토’, ‘미움’, ‘고통’ 등 10개를 사용하였다(긍정성 평균 = 1.91,  $SD = 0.85$ ).

검사의 구성과 절차는 그림 1과 같았다(자세한 절차와 실험화면은 배재창, 한규석, 2015, pp. 45-46 참고). 순서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홀수 참여자에게는 양립조건이 먼저 제시되고 짝수 참여자에게는 비양립조건이 먼저 제시되도록 1차 IAT검사를 제작하였다. 점화 이후 2차 IAT검사에서는 조건의 제시순서가 바뀌었다. 검사는 부정단어 및 부정단어와 연합된 표적이 나오면 왼쪽(Z키), 긍정단어 및 긍정단어와 연합된 표적이 나오면 오른쪽(X키)으로 변별하도록 구성하였다.

3) 첫 번째 시행에 긍정·부정 단어를 1시행 추가하여 21시행을 수행하고, 표적인 자기와 파트너는 그대로 20시행을 수행하도록 만들었다. 분석에서는 1차 시행을 제외한 긍정·부정 단어 20시행이 사용되었다(배재창, 한규석, 2015).

### 실험 절차

소집단(4~8명)으로 편성된 참여자가 실험실에도착하면, 전공이 다른 참여자와 2명씩 약 80cm 간격으로 나란히 앉도록 안내하였다. 참여자에게 단어자극의 분류시간을 알아보는 실험이며 2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알려주고, 실험 중에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놓도록 하였다. 참여자에게 고유번호를 안내한 다음 1차 IAT검사를 지시문에 따라 수행하고서 2분 동안 휴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휴식이 끝나면 실험자는 각 조건에 맞춰 참여자에게 점화과제를 배부한 다음, 과제를 설명하고서 내용을 기록하도록 안내하였다. 과제 배부 후 정확히 3분 뒤에 기록을 중지시키고 바로 2차 IAT검사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 자료 변환 및 분석 방법

오반응이 전체 반응의 10%를 초과한 17명(남자 6명, 여자 11명)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우리성 점화조건 40명(남자 15명, 여자 25명)과 개별성 점화조건 43명(남자 14명, 여자 29명)의 검사결과를 분석했다.

극단값들은 Greenwald 등(1998)의 처리 방법에 따라 300ms 미만은 300ms로, 3,000ms를 초과한 반응은 3,000ms로 변환하였다. 극단값 처리 후 Greenwald, Nosek, 및 Banaji(2003)의 계산 규칙에 따라 오반응은 각 검사의 정반응 평균시간에 600ms를 더한 후 재입력하였다.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독립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표적별로 반응시간을 구분하여, 양립조건에서 상대방+부정반응 20개와 비양립조건에서 상대방+긍정반응 20개의 평균을 구한 후 상대방에 대한 거리감 IAT효과(상대부정 평균 - 상대긍정 평균)를 계산했다. 이 거리감 IAT효과를 전체 반응 80개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거리감 표준 D값(이하 거리감 D값)으로 변환했다(Greenwald et al., 2003). 거리감 D값은 수치가 작을수록 거리감이 증가한다. 아울러 상대방에 대한 긍정반응과 부정반응의 변화도 알아보기 위해 긍정반응 평균과 부정반응 평균을 전체 반응의 표준편차로 나누어서 긍정 표준 D값과 부정 표준 D값으로 변환하였다.

개별성 및 우리성의 점화효과는 1차 IAT검사 결과와 2차 IAT검사결과를 대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고, 거리감에 미치는 점화조건(집단 간: 우리성, 개별성)과 반복측정(집단 내: 1차 IAT검사, 2차 IAT검사)의 상호작용효과는 반복측정 변량분석으로 검증하였다.

## 결과 및 논의

### 점화 조작 분석

참여자 지시에 따라 우리성 혹은 개별성에 관련된 내용을 연상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점화 과제에 기록된 내용을 분석했다. 우리성 조건의 40명은 총 212개의 내용(평균 5.3개)을 기록했다. 그 중 ‘사랑’과 ‘의지할 수 있다’ 등 우리성 관련 내용이 200개(94%), ‘능률의 상승’과 ‘협동’ 등 협력 관련 내용은 6개(3%), 기타 내용은 6개(3%)로 대부분의 참여자가 우리성에 대한 내용을 연상하였다. 개별성 조건의 43명은 총 169개의 내용(평균 3.9개)을 기록했고, ‘자유로움’과 ‘의지대로 할 수 있다’ 등 개별성 관련 내용이 147개(87%), ‘앞서가다’나 ‘쟁취하다’처럼 경쟁에 해당하는 내용이 9개(5%), 기타 내용은 13개(8%)가 있었다.

이 조건의 모든 참여자가 개별성과 관련된 내용을 더 많이 기록하였으므로 목적에 맞게 점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 점화 효과 분석

우리성 점화 시 거리감 D값은  $-.448(SD = .447)$ 에서  $-.210(SD = .540)$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t(39) = -2.61, p < .05$ . 그림 2에서는 우리성 점화 후 거리감 D값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거리감 D값은 값이 커질수록 거리감이 감소한다. 이와 같이 상대방을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결과가 어떤 반응에 의해 나타났는지 살펴보기 위해 부정반응과 긍정반응을 표준 D값으로 변환하여 분석해 본 결과, 우리성 점화 시 상대부정 D값은 그림 3과 같이  $2.57(SD = .633)$ 에서  $2.92(SD = 1.02)$ 로 의미 있게 증가했다,  $t(39) = -2.37, p < .05$ . 이러한 결과는 우리성 점화 후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간이 지연되었음을 의미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부정정서와 연합하는 조건에서 강한 저항을 보였던 기존 연구들과 유사했다(Ferguson & Bargh, 2004; Fishbach & Shah, 2006). 이를 통해 우리성 점화에 의해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수용적으로 바뀌고, 거리감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다.

개별성 점화 시 거리감 D값은  $-.295(SD = .505)$ 에서  $-.443(SD = .389)$ 으로 유의수준에 가깝게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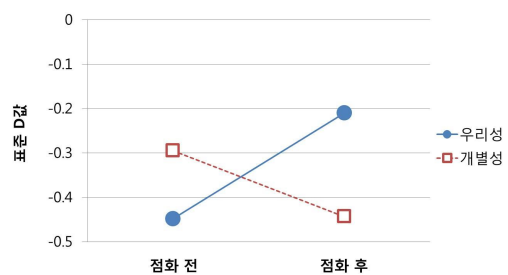


그림 2. 우리성과 개별성 점화 이후 거리감 D값의 변화 (연구 1)  
(거리감 D값이 작을수록 거리감 증가, 점화 전 집단 간 차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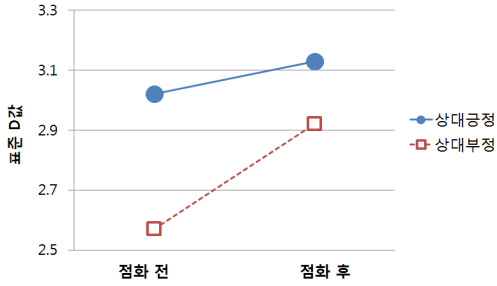


그림 3. 우리성 점화 이후 상대긍정 D값과 상대부정 D값의 변화  
(상대긍정 및 상대부정 반응평균을 표준편차로 나눈 값, 클수록 반응이 느림)

소하였다,  $t(42) = 1.90, p = .065$ . 그러나 개별성 점화 후 상대부정 D값 및 상대긍정 D값의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이는 잘 모르는 상대방과 아무런 교류가 없던 상황에서 검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점화 이전부터 상대방을 개별성 관계로 생각하여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성과 개별성이 환기된 후 점화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거리감 D값에 대한 점화조건(집단 간: 우리성, 개별성)과 반복측정(집단 내: 점화 전, 후)의 2원 변량분석을 실행하였다. 거리감 D값에 대한 점화조건과 반복측정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였다,  $F(1, 81) = 10.43, p < .01$ . 그러나 점화조건의 주효과와 반복측정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들은 우리성 점화조건에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가깝게 여기게 되고, 개별성 점화조건에서는 상대방과 거리를 두게 되어, 점화조건에 따라 거리감의 변화가 차이를 보였으므로 나타난 것이다(그림 2 참고). 따라서 개별성과 우리성의 점화효과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나는 상황에서 개별성과 우리성 중 어떤 관계가 부각되느냐에 따라 대인관계를 상반된 유형으로 이끌 수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는 거리감이 우리성 점화 후 감소했지만 개별성 점화 후 증가했던 선행연구(배

재창, 한규석, 2015)의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우리성의 점화효과( $p < .05$ )와 개별성의 점화효과( $p = .065$ )는 선행연구(우리성  $p = .078$ , 개별성 ns)보다 강하게 나타났고, 점화효과 간 차이( $p < .01$ )도 선행연구( $p < .05$ )보다 더 컸다.

그러나 실제 교류상황에서 평가가 이뤄지는 연구 2에 앞서 두 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표적자극으로 ‘자기’와 ‘파트너’를 사용하였는데, ‘파트너’라는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옆에 앉은 참여자와 연결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이에 연구 2에서는 자신 및 상대방과 쉽게 관련지을 수 있도록 표적자극을 참여자의 실명으로 대체하였다. 다음으로 오반응이 많아서 분석에서 제외된 참여자는 대부분 1차 IAT검사에서만 10% 이상을 틀렸고, 2차 IAT검사에서 오반응이 감소하였다. 이는 연습효과와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기저선 측정 전에 IAT를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용 IAT를 추가로 제작하였다.

## 연구 2

상대방에게 마음을 쓰지 않는 개별성 관계와 달리, 서로 마음을 교환하는 우리성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기대했던 만큼 보상을 분배받지 못했을 때 자존감이 상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부정적 평가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성 관계와 개별성 관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점화를 사용하여 우리성 관계와 개별성 관계를 활성화시킨 후 어려운 실험과제를 공동 수행하도록 한 후, 배려가 없는 조건에서는 수행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제시하고 이를 협조자가 분배하는 상황에서 참여자가 훨씬 적게 분배<sup>4)</sup>받았고, 부정적으

4) 성과비율은 모든 조건에서 평균 7(협조자):3(참여자)으로 설정되었다. 과제가 어려워져 참여자는 성과가 저조했지만 정답을 이미 숙지한 협조자는 뛰어난 성과를 올렸다. 배려 없는 조건에서는 성과비율에 맞춰 차

로 평가받는 조건에서는 협조자가 참여자의 오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도록 구성했다. 어려운 실험과제를 사용한 이유는 배려를 받지 못하는 처치와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처치가 모두 가능하고, 각 처치로 인한 효과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조자의 처치 후에 참여자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IAT로 측정하고 처치 전 평가와 비교하여 처치효과를 살펴보았다.

## 방 법

### 실험 참여자

4년제 대학생 89명이 실험에 참여했다. 참여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40명(44.9%), 여자 49명(55.1%)이었다. 참여자는 실험에 참여하는 보상으로 소정의 참가비를 받았다. 그들은 참여자로 가장한 협조자와 짝을 이루어 참여했다. 성별이 다른 협조자들(23세 남학생, 22세 여학생)은 교대로 참여했지만 참여자는 무작위로 참여하여, 동성과 짝 지워진 참여자가 42명(47%)이었고 이성과 짝 지워진 참여자가 47명(53%)이었다.

### 실험 설계

점화조건(집단 간: 우리성, 개별성)과 처치조건(집단 간: 차등분배, 부정적 평가, 통제) 및 반복측정(집단 내: 1차, 2차, 3차 IAT검사)으로 구성된 2X3X3 혼합 요인 설계로 구성하였다. 표 1과 같이 우리성 점화조건에 44명(차등분배 15명, 부정적 평가 16명, 통제 13명), 개별성 점화조건에 45명(차등분배 16명, 부정적 평가 15명, 통제 14명)을 무선 배정하였다.

등분배가 이루어졌고, 참여자의 입장에서는 과소 불균등 분배상황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 암묵적 연합검사

참여자는 ① 연습형 검사, ② 1차 IAT검사(기본형), ③ 2차 IAT검사(점화유지형), ④ 3차 IAT검사(점화유지형) 순으로 수행하였다. 각 검사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기본형 검사

연구 1에서 사용된 검사를 바탕으로 표적대상을 참여자와 협조자의 이름으로 바꾸고 전체 구성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본형 검사는 전체 7블럭 182시행으로 구성되었고, 1차 IAT검사에만 사용되었다.

#### 연습형 검사

IAT구조를 익히도록 하기 위해, 기본형 검사의 조건별 시행 횟수를 절반(90시행)으로 줄여 소요시간을 단축시켰다. 이 검사는 1차 IAT검사 이전에 1회만 수행하였으며, 결과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 점화유지형<sup>5)</sup> 검사

우리성 및 개별성 점화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점화과제의 맨 위 사진(우리성-어깨동무한 쌍둥이, 개별성-혼자 달리는 사람)을 그림 4와 같이 기본형 검사의 화면 상단에 추가했다. 검사 소요시간을 단축하고자 기본형에서 특성변별과제를 삭제했고, 각 표적변별 시행을 10회로 줄여서 전체 6블럭 142시행으로 제작하여(그림 5 참고), 2차 IAT검사와 3차 IAT검사로 사용했다.

5) 우리성과 개별성 점화 이후 2차 IAT검사와 차등분배 및 부정적 평가 처치 후 3차 IAT검사까지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3차 IAT검사 전 두 번째 점화를 실행하는 것은 처치조건과 함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점화 후 실행하는 2차 IAT검사와 3차 IAT검사에는 점화과제에서 사용된 사진자극을 배경으로 삽입하여 제시하였다.

표 1. 점화조건 X 성별 X 처치조건에 따른 표본 분포 (단위 : 명)

구 분		처치조건			전 체
		차등분배	부정적 평가	통제조건	
우리성	남 자	6(5)	8(8)	6(4)	20(17)
	여 자	9(8)	8(6)	7(7)	24(21)
	합 계	15(13)	16(14)	13(11)	44(38)
개별성	남 자	7(5)	7(6)	6(5)	20(16)
	여 자	9(8)	8(7)	8(6)	25(21)
	합 계	16(13)	15(13)	14(11)	45(37)

주. 괄호 안은 오반응 비율이 10%를 초과한 14명을 제외한 후 분석에 포함된 인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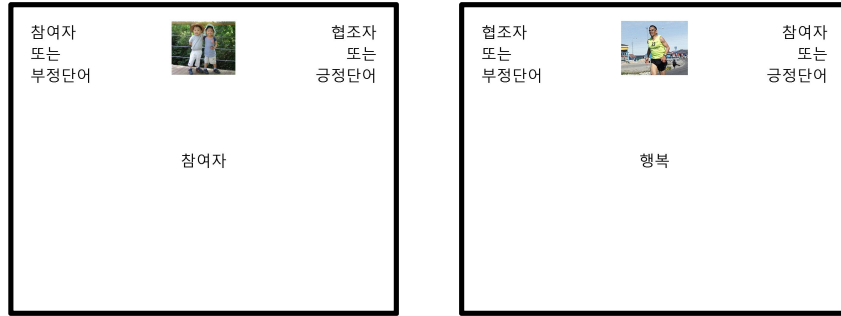


그림 4. 점화자극을 배경으로 제시하는 점화유지형 검사의 실행화면  
(왼쪽은 우리성 점화에서 비양립조건, 오른쪽은 개별성 점화에서 양립조건)

① 표적변별	② 조합-연습	③ 조합-실전	④ 역표적변별	⑤ 역조합-연습	⑥ 역조합-실전
참여자* *협력자	참여자* 긍정* *협력자 *부정	참여자* 긍정* *협력자 *부정	*참여자 협력자*	*참여자 *부정 협력자* 긍정*	*참여자 *부정 협력자* 긍정*
10시행	20시행	41시행	10시행	20시행	41시행

그림 5. 점화유지형으로 사진이 첨부된 암묵적 연합검사의 절차(\* 표시는 반응 방향)

상식문제 구성

차등분배조건에서 성과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전체 문항을 20개로 결정했다. 7:3인 성과 비율에 따라 협조자가 평균 15문항을 맞추

고, 참여자가 평균 7문항을 맞출 수 있도록 난이도가 다양한 문항들을 선별했다(부록 참고). 협조자가 틀려야 하는 문항을 난이도가 높은 순서대로(번호 20, 13, 9, 7, 2 순) 지정해 주었다.

### 실험 절차

참여자와 협조자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이름을 확인하고 실험자를 기준으로 협조자는 왼쪽, 참여자는 오른쪽에 앉았다. 실험자는 실험과정을 설명하고 모니터와 키보드를 조작하기 편한 위치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참여자의 고유번호를 안내하고 IAT 수행방법을 설명한 후 연습형 검사를 수행하도록 했다(그림 6 참고). 두 사람은 연습형 검사를 마친 후 1차 IAT검사를 실행했으며, 1차 IAT검사가 끝나면 연구 1과 동일한 점화과제를 배부했다. 참여자와 협조자는 점화과제를 3분 동안 수행한 다음 바로 2차 IAT검사를 수행했다. 2차 IAT검사가 종료되면 상식문제를 배부하면서 세 가지 조건별 처치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 차등분배조건

본 실험에서는 모든 참여자에게 참가비로 현금 3,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조건에서는 실험비를 외부에서 지원받아 참가비를 5,000원씩 지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천 원짜리 지폐 다섯 장을 클립으로 끼워서 참여자와 협조자 앞으로 건네주었다. 이에 모든 참여자가 5,000원씩 받으리라 기대하게 되었다. 하지만 실험자는 상식문제를 공동과제로 제시하여 많이 맞춰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참가비를 재분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안내하였다. 3분 동안 문제를 풀고, 문제지를 교환하여 채점하는 상황에서 협조자는 답안이 아닌 문제 번호

에 정답여부를 작게 표시하였고(오답인 경우 사선 길이가 1~1.5cm),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였다. 채점이 끝나면 실험자는 두 사람의 점수를 합한 다음 각자의 기여도를 계산하였다. 답을 미리 알고 있던 협조자의 기여도가 항상 높기 때문에 실험자는 “OOO 님의 기여도가 더 높기 때문에 OOO 님에게 참가비를 재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OOO 님께서는 두 분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참가비를 원하는 대로 분배해 주세요.”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조자는 성과비율에 맞춰 참여자 옆에 놓여진 5,000원 중 평균 2,000원을 가져가서 자신 옆에 있던 5,000원 위에 올려놓았다. 그 결과 협조자는 평균 7,000원, 참여자는 평균 3,000원으로 차등분배가 이루어졌다.

#### 부정적 평가조건

참여자와 협조자는 3분 동안 문제를 풀고, 문제지를 교환하여 채점했다. 채점하는 상황에서 협조자는 참여자가 틀릴 때마다 답안에 빨간색 펜으로 사선을 길게(3~4cm) 그어 버렸고, 자신은 맞췄지만 참여자가 틀린 경우 “틀렸고!”라고 읊조리는데 참여자는 이 소리를 3문제에서 듣게 되었다. 게다가 14번부터 19번까지 비교적 쉬운 문제 중에서 틀린 경우 협조자는 “이런 걸 틀리나?”라고 한 번 중얼거렸다.

#### 통제조건

3분 동안 문제를 풀고, 답안이 적힌 문제지를 교환하여 차등분배조건과 동일하게 채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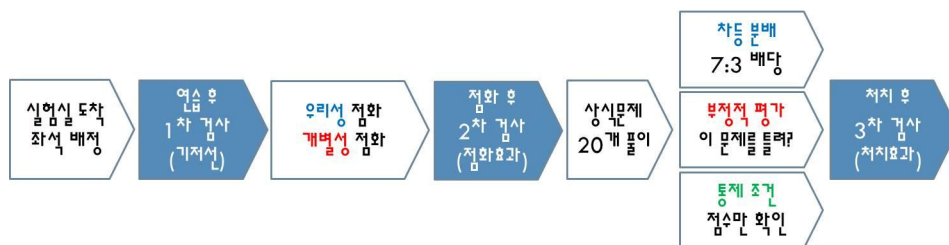


그림 6. 연구 2에서 참여자와 협조자가 수행하는 실험의 절차

채점이 끝나면 참여자와 협조자는 서로의 점수만 확인하였다.

각 처치가 이루어진 후 3차 IAT검사를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검사가 종료되면 처치받은 각 상황에서 자신과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질문했고, 차등분배조건에서는 자신에게 분배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분배하려 했던 금액과 상대방에게 기대했던 금액이 얼마였는지 물어보았다. 마지막으로 IAT와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모든 조건의 참여자에게 참가비 3,000원을 지급하고 마무리했다.

### 자료 변환 및 분석 방법

실험에 불성실하게 임하여 오반응이 전체 반응의 10%를 초과한 14명(남자 7명, 여자 7명)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국 우리성 점화조건 38명(차등분배 13명, 부정적 평가 14명, 통제 11명)과 개별성 점화조건 37명(차등분배 13명, 부정적 평가 13명, 통제 11명)의 검사결과를 분석하였다.

극단값 및 오반응의 처리 방법은 연구 1과 같았다. 검사별 반응시간들은 자신 및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구별하기 위해, 양립조건은 자신+긍정반응 20개와 상대방+부정반응 20개로, 비양립조건은 자신+부정반응 20개와 상대방+긍정반응 20개로 분리하여 평균을 계산했다. 다음으로 대상별 IAT효과(대상부정 평균 - 대상긍정 평균)를 산출한 후에 전체 반응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대상별 표준 D값으로 변환했다(Greenwald et al., 2003). 편의상 자아평가의 표준 D값은 자존감 D값, 상대방 평가의 표준 D값은 거리감 D값으로 표현하였다. 표준 D값이 클수록 대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또한 자신 및 상대방에 대한 긍정반응과 부정반응의 변화도 알아보고자 대상별 긍정평균과 부정평균을 각 검사의 표준편차로 나누어서 대상별 긍정 표준 D값과 부정 표준 D값으로 변환했다. 이 값들은 클수록 반응시간이 느려진 것이다.

차등분배 및 부정적 평가의 처치효과는 2차 IAT검사와 3차 IAT검사의 결과를 대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처치효과가 통제조건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치조건(집단 간: 차등분배vs통제, 부정적 평가vs통제)과 반복측정(집단 내: 2차, 3차 IAT검사)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각 처치효과가 관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처치별 점화조건(집단 간: 우리성, 개별성)과 반복측정(집단 내: 2차, 3차 IAT검사)의 상호작용효과를 반복측정 변량분석으로 검증했다.

## 결과 및 논의

### 점화 조작 분석

참여자들이 점화 시 연상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우리성 조건에서 참여자 38명은 총 145개의 내용(평균 3.8개)을 기록하였다. 그 중 우리성에 해당하는 내용이 137개(94.5%), 협력과 관련된 내용은 3개(2.1%), 기타 내용은 5개(3.4%)로 대부분이 우리성에 대한 내용을 연상하고 있었다. 한편 개별성 조건에서 참여자 37명은 총 130개의 내용(평균 3.5개)을 기록하였는데, 개별성에 관련된 내용이 116개(89.2%), 경쟁에 해당하는 내용이 8개(6.2%), 기타 내용은 6개(4.6%)로 개별성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협조자와 참여자의 관계가 점화를 통해 우리성 관계 혹은 개별성 관계로 활성화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거리감이 우리성 점화 후 감소하고, 개별성 점화 후 증가하여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거리감 D값은 우리성 점화 시  $-.333(SD = .371)$ 에서  $-.207(SD = .408)$ 로, 개별성 점화 시  $-.189(SD = .355)$ 에서  $-.270(SD = .423)$ 으로 변화하여(그림 7참고), 거리감 D값에 대한 점화조건(집단 간: 우리성, 개별성)과 반복측정(집단 내: 1차, 2차 IAT검사)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했다,  $F(1, 7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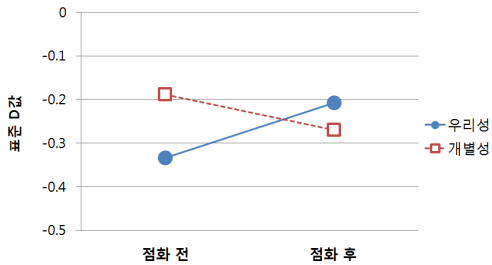


그림 7. 우리성과 개별성 점화 이후 거리감 D값의 변화 (연구 2)  
(거리감 D값이 작을수록 거리감 증가, 점화 전 집단 간 차이 없음)

4.06,  $p < .05$ . 이는 두 점화효과 간 차이가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목적에 맞게 점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처치 효과 분석

참여자에게 차등분배나 부정적 평가의 처치를 가하기 위해서는 협조자와 참여자의 상식문제 점수가 평균 7:3 비율을 유지해야만 했다. 상

식문제 점수를 살펴본 결과 협조자는 15.09점( $SD = 1.41$ ), 참여자는 6.65점( $SD = 2.17$ )으로 모든 조건에서 7:3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조건별 상식문제 점수와 처치 이후 참여자가 협조자에게 느꼈던 내용은 표 2와 같았다. 참여자는 상식문제를 풀고 상대방에 비해 초라한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자존감과 거리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처치로 차등분배 및 부정적 평가가 이루어졌다. 표 3에는 각 처치조건별 자존감 D값과 거리감 D값의 변화가 정리되어 있다.

우리성 관계에서 처치효과(가설 1, 2 검증)

우리성 점화 후 차등분배조건에서 자존감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t(12) = 2.18, p < .05$ .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거리감은 증가하지 않았다,  $t(12) = .55, p = .592$ . 부정적 평가조건에서는 자존감이 처치 전 .210에서 처치 후 .376으로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다( $ns$ ). 그러나 거리감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t(13) = 4.41, p < .01$ . 이 조건에서 유일하게 자존감이 증

표 2. 조건별 상식문제 점수와 처치 이후 협조자에 대한 참여자의 느낌

구 분	참여자 점수		협조자 점수		협조자에 대한 느낌	
	평균	SD	평균	SD		
우리성	차등분배 (n=13)	6.38	1.81	15.31	1.18	실망스럽다(5), 서운함(3), 섭섭함(2) 계산적이다(1), 야박함(1), 냉정하다(1)
	부정적 평가 (n=14)	7.14	2.48	14.93	1.90	짜증난다(6), 재수 없다(4) 거슬린다(2), 불쾌하다(2)
	통계조건 (n=11)	7.00	1.79	15.27	0.65	머리가 좋다(4), 똑똑하다(3) 존경스럽다(2), 달라 보인다(2)
개별성	차등분배 (n=13)	6.31	2.69	14.92	1.32	별 느낌 없다(5), 상황만 짜증난다(3) 짜증난다(2), 돈 아깝다(2) 실망스럽다(1)
	부정적 평가 (n=13)	6.92	2.53	14.77	2.05	짜증난다(5), 거슬린다(4) 불쾌하다(3), 당혹스럽다(1)
	통계조건 (n=11)	6.09	1.51	15.45	0.52	대단하다(4), 신기하다(3) 똑똑하다(3), 굉장하다(1)

주. 괄호 안은 인원수.



표 3. 여섯 가지 조건별(점화2\*처치3) 자존감 및 거리감 D값의 변화

구분	자	자존감 표준 D값			거리감 표준 D값			
		2차	3차	변화량	2차	3차	변화량	
우리성	차등분배	13명	.494(.289)	.141(.549)	-353*	-.279(.498)	-.345(.241)	-.066
	부정적 평가	14명	.210(.372)	.376(.295)	+166	-.061(.359)	-.473(.475)	-.412**
	통제조건	11명	.483(.476)	.459(.430)	-.024	-.307(.320)	-.055(.337)	+252**
개별성	차등분배	13명	.408(.509)	.340(.432)	-.068	-.308(.371)	.011(.484)	+319†
	부정적 평가	13명	.344(.319)	.252(.329)	-.092	-.177(.559)	-.222(.511)	-.045
	통제조건	11명	.520(.199)	.475(.323)	-.045	-.336(.291)	.091(.367)	+427*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거리감 표준 D값은 작을수록 거리감이 증가. † $p < .10$ , \* $p < .05$ ,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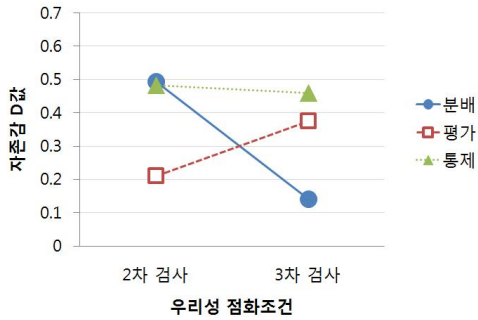


그림 8-1. 우리성 관계에서 처치별 자존감 D값의 변화 (자존감 D값이 증가할수록 대상을 긍정적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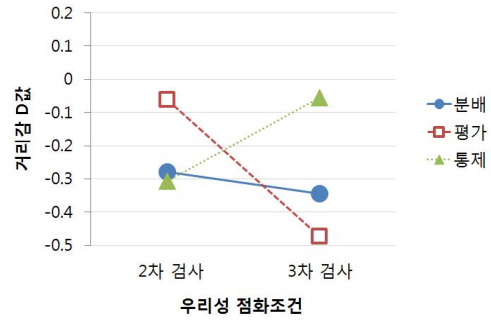


그림 9-1. 우리성 관계에서 처치별 거리감 D값의 변화 (거리감 D값이 감소할수록 대상을 부정적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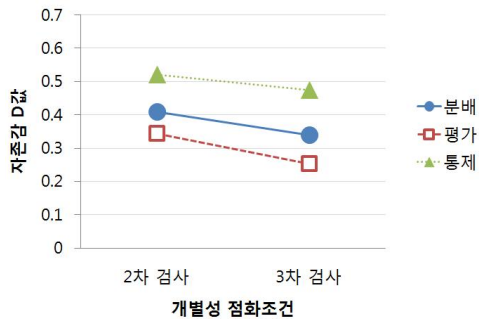


그림 8-2. 개별성 관계에서 처치별 자존감 D값의 변화 (모든 조건에서 자존감이 미미하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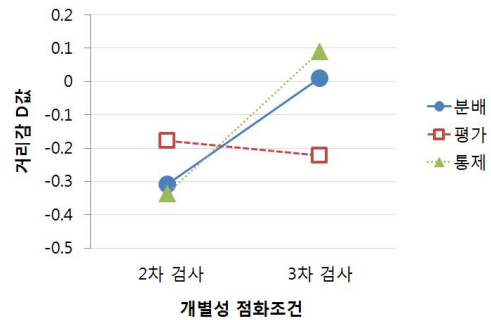


그림 9-2. 개별성 관계에서 처치별 거리감 D값의 변화 (차등분배 및 통제조건에서 호감으로 바뀜)

가하였으며(그림 8-1 참고), 거리감이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그림 9-1 참고). 거리감에서 상

대긍정 D값 과 상대부정 D값 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그림 10 참고), 상대부정 D값이 3.00(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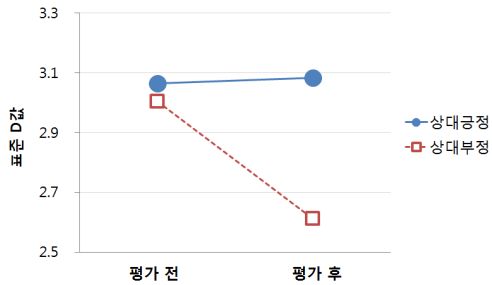


그림 10. 우리성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 이후 상대긍정 D 값과 상대부정 D값의 변화  
(수치가 작을수록 반응이 빠르고 클수록 반응이 느림)

= .614)에서 2.61( $SD = .777$ )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t(13) = 2.31, p < .05$ . 이러한 결과는 우리성 관계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받은 경우 상대부정 반응시간이 더욱 빨라진 것으로, 우리성 점화 시 나타났던 상대부정 반응에 대한 저항이 부정적 평가 후에는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통제조건에서 자존감은 감소하지 않았지만(ns), 거리감은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  $t(10) = -3.76, p < .01$  이는 참여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점수가 낮고, 상대방의 점수가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능력을 높게 평가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우리성-통제조건의 검사결과를 우리성-차등분배조건과 비교해 본 결과, 자존감에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F(1, 22) = 1.95, p = .177$ . 그러나 거리감의 경우 통제조건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차등분배조건에서는 소폭 증가하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1, 22) = 4.77, p < .05$ . 이런 결과들은 우리성-차등분배조건에서 자존감이 감소하고 거리감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1을 부분적으로만 지지하였다. 그러나 차등분배조건만 살펴보았을 때 자존감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는데, 자존감은 이 조건에서만 큰 폭으

로 감소하였고, 다른 조건에서는 감소량이 크지 않았다. 아울러 모든 조건에서 참여자의 점수는 낮았고 협조자의 점수는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우리성-통제조건에서 참여자의 자존감은 미미하지만 감소하였고 상대방에 대한 거리감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차등분배 이전부터 자존감이 어느 정도 감소한 상태였음을 고려할 때 차등분배 이후 자존감이 추가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통제조건처럼 거리감이 큰 폭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차등분배로 인해 거리감이 다시 증가하였다.

우리성-통제조건과 우리성-부정적 평가조건을 비교해본 결과, 자존감은 차이가 없었지만(ns), 거리감에서는 통제조건의 감소와 부정적 평가조건의 증가로 극명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F(1, 23) = 30.04, p < .001$ . 이는 자존감 감소와 거리감 증가를 예상한 가설 2에서 거리감 증가만을 지지한 것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은 참여자는 협조자에게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었지만 자존감은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 모욕이나 부정적 평가로 인해 자존감이 상한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분노하거나 강하게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Aspinwall & Taylor, 1993; Baumeister et al., 1989; Kliever, 1986), 협조자에 대한 거리감의 증가는 자존감의 손상을 의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성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참여자의 입장에서는 기대를 떠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협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 개별성 관계에서 처치효과

개별성 점화 후 차등분배조건에서는 자존감이 감소하지 않았고(ns), 상대방에 대한 거리감은 유의미수준에 가깝게 감소하여,  $t(12) = -2.12, p = .055$ , 호감( $D값 = .011$ )으로 바뀌었다. 부정적 평가조건에서 자존감과 거리감은 변화하지 않았다(ns). 그런데 통제조건에서는 우리성-통제조건과 유사하게 자존감은 감소하지 않았지만(ns), 거리감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여,  $t(10) = -2.78, p <$

- 6) 처치 전 우리성-부정적 평가조건과 우리성-통제조건 간 자존감 D값은 차이가 없었다,  $t(23) = -1.61, p = .122$ .
- 7) 처치 전 우리성-부정적 평가조건과 우리성-통제조건 간 거리감 D값은 차이가 없었다,  $t(23) = 1.78, p = .088$ .

.05, 호감(D값 = .091)으로 바뀌었다.

개별성-통제조건의 검사결과와 개별성-차등분배조건을 비교해본 결과, 자존감과 거리감 모두 차이가 없었다(ns). 그림 8-2와 그림 9-2에서 차등분배조건과 통제조건의 결과는 매우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차등분배가 이뤄졌지만 통제조건과 흡사한 결과가 나온 것은 개별성 관계에서 차등분배로 인한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개별성-통제조건을 개별성-부정적 평가조건과 비교한 결과, 자존감 및 거리감에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ns). 실험 후 면담에서 참여자는 협조자에게 짜증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보고했지만, 상대방에 대한 거리감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참여자가 느꼈다는 정서의 내용과 암묵적 거리감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통제조건에서 상대방의 점수가 자신보다 월등히 높다는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정서를 상쇄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사람들이 상대방을 평가하는 데 있어 능력적인 차원과 인성적인 차원을 함께 고려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한규석, 최송현, 정옥, 배재창, 2004).

#### 관계에 따른 처치효과 비교(가설 3, 4 검증)

차등분배 및 부정적 평가의 처치효과가 관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동일한 처치조건에서 우리성 관계와 개별성 관계를 비교했다. 차등분배 받은 경우 자존감은 우리성 관계에서 감소했지만 개별성 관계에서도 소폭 감소하여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F(1, 24) = 2.27, p = .145$ . 그러나 거리감은 우리성 관계에서 증가한 반면, 개별성 관계에서 감소하여 유의수준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F(1, 24) = 3.99, p = .057$ . 이에 차등분배의 부정적인 효과가 우리성 관계에서 더 클 것이라 예상한 가설 3은 지지받지 못했다. 그러나 통제조건에 비해 우리성 관계에서만 거리감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므로 거리감 측면에서는 간접적인 지지가 이뤄졌다.

아울러 관계에 따라 분배하려 했던 금액 및 기대했던 금액이 차이를 보였는데, 우리성 관계에서는 자신이 분배할 경우 대부분 5,000원씩 균등분배하려 했고(5:5균등<sup>8)</sup> 10명, 6:4절충 2명, 7:3형평 1명), 상대방에게도 5,000원을 받으리라 기대·예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5:5균등 10명, 4:6절충 2명, 3:7형평 1명). 그러나 개별성 관계에서는 균등하게 분배하려 했던 인원이 비교적 적었고(5:5균등과 6:4절충이 각 5명씩, 7:3형평 3명), 상대방에게 균등분배를 기대·예상했던 인원도 1명에 불과했다(5:5균등 1명, 4:6절충 4명, 3:7형평 8명). 우리성 관계에서는 균등분배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기대와 달리 차등분배 받게 되어 상대방에게 실망했다. 그러나 개별성 관계에서는 균등분배에 대한 기대가 낮거나 없었기 때문에 차등분배 받았지만 실망하지 않았다.

부정적 평가로 인한 자존감의 변화는 두 관계 사이에서 차이가 없었다,  $F(1, 25) = 2.26, p = .146$ . 아울러 거리감에서도 두 관계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F(1, 25) = 2.56, p = .123$ . 하지만 자신보다 뛰어난 협조자의 능력으로 인하여 거리감이 감소한 통제조건에 비해 우리성-부정적 평가조건에서는 거리감이 많이 증가했다. 반면에 개별성-부정적 평가조건에서는 통제조건과 차이가 없었다. 아울러 부정적 평가로 인해 우리성 관계에서는 자존감과 거리감의 격차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자신과 상대방을 남처럼 구분하게 되었다. IAT에서 상대방에 대한 혐오가 강해지면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커진다(나은영, 권준모, 2002). 그러나 개별성 관계에서는 자존감과 거리감의 격차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성 관계에서는 개별성 관계보다 상대방의 부정적 평가를 더 큰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부정적 평가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우리성 관계에서 더 클 것으로 예상한 가설 4는 지지받지

8) 5:5 비율은 5,000원:5,000원을 의미하며, 앞의 숫자가 자신이 받을 보상의 비율임.

못하였지만, 거리감의 경우 가설이 지지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 종합 논의

타인으로부터 기대한 만큼 배려받지 못하거나(김기범, 최상진, 2002; 손영미, 최상진, 1999) 부정적으로 평가받게 되면(박승진 등, 2011; Dijksterhuis, 2004) 자존감이 손상될 수 있음을 많은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친소관계를 구분하여 살펴보지 않았고, 배려와 관련된 연구는 조사에 의존하고 있었다. 우리성 관계에서는 상대방과의 교류에 의해 정서 및 행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개별성 관계에서는 상대방과의 교류가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한규석, 최상진, 2008; Markus & Kitayama, 199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점화를 통해 우리성 관계와 개별성 관계를 활성화시키고, 보상을 분배하는 상황에서 배려받지 못하는 경우 우리성 관계에서만 자존감이 손상되는지 검증하였다. 아울러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경우 관계에 따라 자존감의 손상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 차등분배로 인한 자존감 감소

우리성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보상을 적게 받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손상되었고, 상대방에 대한 거리감은 통제조건에 비해 더욱 증가되어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그러나 개별성 관계에서 차등분배 받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감소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 거리감이 호감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균등분배에 대한 기대수준이 두 조건에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문광수, 이충원, 오세진, 2007; Leung & Park, 1986).

우리성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남이 아니라 우리로서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경계가 허물어진다(최봉영, 2012, pp. 39-46; 최상진, 1997). 그래서 상대방에게 관심과 배려를 베풀고서, 상대방도 자신에게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분배 상황에서 우리성 관계의 참여자는 상대방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균등분배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한 이유는 균등분배가 불만족을 최소화시키므로(오성호, 2003; 장성수, 1985; Tom, Fox, Trepel, & Poldrack, 2007),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은 상대방이 친구인 경우 균등분배를 선호한 반면 형평분배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Leung & Bond, 1984). 본 연구 2의 우리성 관계에서는 자신의 기여도가 높을 경우 균등분배를 생각한 인원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아울러 이들은 모두 상대방의 기여도가 더 높은 경우에도 균등분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기대를 저버리는 차등분배로 인해 상대방에게 서운함을 느끼며 실망하였고, 각자의 성과를 구분하고 자신의 몫을 먼저 챙기는 상대방의 모습에서 냉정함을 느꼈다. 상대방에게 따뜻한 배려를 기대했던 참여자의 입장에서 분명한 사실은 자신의 기대가 틀렸다는 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참여자는 자존감이 상하고, 상대방에 대한 반감이 증가한 것 같다.

하지만 개별성 관계에서는 상대방과의 경계가 분명하다. 그래서 긍정적인 정서를 교환하거나 서로 배려해 주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최상진, 1997; 한규석, 최상진, 2008). 이에 참여자는 개인별 성과 차이에 주목하여 형평분배를 염두에 두었다(Austin & Walster, 1974; Tabibnia et al., 2008). 그 결과 자신의 기여도가 높을 경우 절충 및 형평분배를 생각한 인원이 균등분배를 생각한 인원보다 많았고, 자신은 균등 및 절충분배를 생각했지만 상대방에게 균등 및 절충분배를 기대한 참여자도 거의 없었다. 개별성 관계에서 균등분배를 기대한 참여자는 한 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상대가 자신을 위해 배려해 주리라는 기대가 없거나 낮았기 때문에

차등분배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들(박세영, Harrison, 1998; 장성수, 1985)에서는 분배비율만 고려할 경우 균등분배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상대방보다 적게 받을 경우 강한 불만이 나타남을 보였다. 그러나 박세영과 Harrison(1998)의 분배당사자들은 우리성 관계였으므로 상대방보다 작은 몫에 실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장성수(1985)의 연구에서 분배당사자들은 개별성 관계였는데, 자신의 투입량이 적을 경우 자신이 적게 받더라도 불만이 없었다. 본 연구에서도 개별성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적게 받았지만 불만이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 2의 차등분배조건에서는 투입요인인 능력이 성과에 그대로 반영되어 분배당사자들이 서로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었다. 아울러 개별성 관계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며,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작용하여(한규석, 최상진, 2008), 자신의 낮은 성과에 따른 차등분배에도 불만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부정적 평가로 인한 거리감 증가

우리성 관계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받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거리감은 크게 증가하여 가설 2는 거리감에서만 지지받았다. 그러나 개별성 관계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받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감소하지 않았고, 거리감도 증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도 우리성 관계가 개별성 관계보다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성 관계에서는 관계적 자아가 활성화되어 상대방과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진다. 관계적 자아는 소중한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는 자아의 측면이므로(Chen, Boucher, & Tapias, 2006), 상대방에게 존중과 배려를 받고 싶어 한다(송은주, 이재연, 이철희, 2012). 우리성 관계가 성립되어 상대방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자신도

상대방에게 소중한 존재이길 기대하는 상황에서 부정적 평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행동일 수 있다. 사람들은 우리성 관계에서 평가에 더 민감하리라 예상하였는데(송은주 등, 2012; 염시창, 박현주, 2005), 실제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이후 거리감의 증가는 우리성 관계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한편 우리성-부정적 평가조건에서 자존감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거리감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고양 동기가 강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IAT에서는 상대방을 좋아할수록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정서의 차이가 줄어든다. 반면에 상대방을 싫어할수록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정서의 차이는 확대된다(나은영, 권준모, 2002; 배재창, 안상수, 한규석, 2004). 우리성-부정적 평가조건에 참여자는 자신을 더욱 좋게, 상대방을 더욱 나쁘게 구분한 것이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참여자는 실추된 자존감을 끌어올리고, 상대방에 대한 반감을 더욱 증폭시킨 것으로 보인다(Billig & Tajfel, 1973; Brewer, 1979). 즉, 우리성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가졌던 관심과 기대를, 부정적 평가 이후에 회수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성 전화 이후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에 강한 저항을 보였지만, 부정적으로 평가받은 후에는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매우 강해졌다. 이종숙(1991) 및 Lemyre와 Smith(1985)는 차별이 자존감을 상승시킨다고 밝혔다. 그런데 IAT는 대상을 추구하는 반응과 거부하는 반응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므로(Fishbach & Shah, 2006), IAT상에서 상대방에 대한 부정반응은 상대방에 대한 거부나 차별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우리성-부정적 평가조건에 참여자가 보인 강한 거리감은 자신의 실추된 자존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차별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반면 개별성 관계에서는 개별적 자아가 활성화되어 상대방과의 경계가 분명히 유지된다. 개별적 자아는 타인들로부터 구별되고 개인적

특성을 보이는 자아의 측면이므로(Brewer & Gardner, 1996), 자신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자존감을 좌우하게 된다(Heine, Lehman, Markus, & Kitayama, 1999; Markus & Kitayama, 1991). 이렇게 개별성 관계에서는 자신의 평가를 우선시하므로 상대방의 부정적인 평가에도 자존감이 상하지 않았고, 거리감도 커지지 않았다. Heatherton과 Vohs(2000)의 연구에서 참여자는 과제수행 후 개별성 관계인 실험자로부터 자신의 점수가 학교 평균의 40% 정도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피드백을 받고서 적대적인 행동이 많아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개별성의 점화로 인해 참여자와 협조자의 심리적 거리가 더욱 멀어진 결과, 부정적 평가의 효과가 감소하여 거리감이 증가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우리성 관계의 정서적 민감도

본 연구를 통해 우리성 관계에서는 배려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존감이 손상되고 거리감이 증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배려는 상대방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이며, 마음을 주고받는 우리성 관계에서만 나타나므로, 개별성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을 배려하지 않더라도 개의치 않을 수 있었다. 이에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아울러 부정적인 평가는 우리성 관계에서만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을 증폭시켜, 가설 4에서 거리감의 차이에 대한 예상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 개별성 관계보다는 우리성 관계에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상대방과의 상호작용 내용에 따라 자신에 대한 평가 결과가 좌우되었기 때문에 우리성 관계에서 자존감은 관계적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성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자신처럼 주관화하며 우리라는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지만, 개별성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사물처럼 대하며 거리를 두게 된다(한규석, 최상진, 2008). 우리성 관계와

개별성 관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방과의 심리적 거리이다. 심리적 거리가 가까우면 상대방에게 소중하게 대우받고 싶은 기대가 커지게 된다. 하지만 심리적 거리가 멀 경우 상대방에게 소중히 대우받고 싶은 기대는 없거나 작을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거리와 기대의 크기가 상호작용하게 되면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평가가 우리성 관계에서는 호오로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이유로 개별성 관계에서는 정서적 평가가 극단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가까운 이들의 실수에 대해 별 생각 없이 훈계를 하거나 바쁜 사정으로 인해 경조사를 챙기지 못했을 때, 우리성 관계니까 상대방이 이해하고 수용해 주리라 예상한다(배재창, 정재훈, 한규석, 2011). 하지만 우리성 관계에서는 사소한 행동으로도 실망하여 자존감이 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우리성 관계가 개별성 관계보다 부정적인 평가에 민감하며, 강하게 거부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에 처벌을 하거나 비평하는 상황에서 우리성의 강조는 상대방의 거부감이나 저항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으며,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언행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

우리성-차등분배 이외의 조건들에서 자존감은 예상과 달리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게다가 우리성-부정적 평가조건에서는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자존감이 오히려 조금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여기서 자존감이 유지되었다는 결과만 반영할 경우, 부정적 평가는 자존감을 손상시키지 못한 것이 된다. 실험 상황에서 거리감이 증가한 만큼 자존감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한계를 갖는다. 그런데 Dijksterhuis(2004)의 연구에서 자신과 긍정단어를 연합하여 자기

고양 처치를 받은 사람들은 부정 피드백을 받았지만 암묵적 자존감의 변화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는 IAT를 계속 수행하면서, 자신을 긍정단어와 연합하게 된 결과 자기고양 동기가 강해졌을 수 있다. 또한 실험 상황에서 참여자는 자존감을 손상시키는 처치를 받고 3차 IAT 검사를 실행하는 동안, 긍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반추를 억제하여 손상되었던 자존감을 어느 정도 회복시켰을 가능성도 있다(Updegraff, Emanuel, Suh, & Gallagher, 2010). 하지만 자기고양 및 자기회복 기제와 무관하게 IAT의 구조로 인해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IAT는 자신과 상대방을 대응시킨 상태에서 두 대상에 대한 상대적인 정서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자존감이 상했더라도 자신을 공격한 협조자와 대응되기 때문에, 상대방에 비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상대적인 변화가 관찰될 수 있는 것이다. 추후 자존감의 손상을 암묵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면, 표적대상을 대응시키지 않고 하나만 제시하는 단일범주 암묵적 연합검사(Single Category IAT, Karpinski & Steinman, 2006)를 사용하고 처치 후 검사시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인의 교류에 바탕한 대인관계 이론을 실험으로 검증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인은 마음의 교환 유무에 따라 대인관계를 우리성 관계와 개별성 관계로 구분한다. 본 연구를 통해 마음을 서로 교환하는 우리성 관계는 정서적으로 민감하여 기대만큼 마음을 받지 못하면 상처받기 쉽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어울림과 화목을 추구하는 우리성 관계이지만 상처받기 쉬운 특징으로 인해 더 큰 갈등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인은 우리성 관계에서 실망하게 되면 서운하다, 섭섭하다, 야속하다, 매정하다와 같이 표현하는데, 다른 문화에서도 친밀한 사람에게 실망감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우리성 관계와 개별성 관계는 한국만의 구분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구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대인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 관계를 우선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추후 연구에서는 칭찬이나 배려를 받도록 처치하고서 자존감과 대인평가의 변화를 관계별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차등분배와 부정적 평가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는 상대방에게 배려받기를 기대했던 우리성 관계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칭찬이나 배려를 받도록 처치를 가한다면, 우리성 관계에서는 기대에 부합한 처치가 되지만 개별성 관계에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처치가 될 수 있다. 개별성 관계에서 칭찬은 의외의 결과이지만, 상대방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성 관계에서 칭찬은 의외의 결과가 아니지만 상대방 의견에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한편 물리적으로 따뜻함이 점화되었을 때 친구에게 선물을 양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Williams & Bargh, 2008), 우리성 관계에서는 따뜻한 마음을 교환하므로 우리성을 점화할 경우에도 상대방을 위한 행위가 증가할 수 있는지 후속연구를 통해 살펴볼 가치가 있다.

##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서울: 창작마을.
- 고재홍 (2001). 집합주의-개인주의 성향에 따른 분배규범의 선호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3), 1-16.
- 김기범, 김미희, 최상진 (2002). 한국인의 대인관계에서의 기본도덕으로서의 의리분석: 한국인에게 진정한 친구는 의리있는 친구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1), 79-101.
- 김기범, 최상진 (2002). 정(情) 마음 이야기 (Narrative)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

- 격, 16(2), 29-50.
- 김민정, 이기학 (2014). 외현적·암묵적 자존감과 분노 상황에 따른 공격성 차이 연구. *상담학 연구*, 15(4), 1343-1363.
- 김민정, 현명호 (2010).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남성 화병 증상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19-33.
- 김정식, 송유진, 이성수 (2008). 문화점화가 자기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1), 177-193.
- 김진숙 (2011). 부부 불만족 지각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2), 179-196.
- 나은영, 권준모 (2002). 암묵적 연합 검사에 의한 지역 편견의 강도 측정 및 응용: 사투리 음성 자극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51-74.
- 문광수, 이충원, 오세진 (2007). 과업 상호의존성과 성과급 형태가 임금 만족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pp. 360-361.
- 박세영, Harrison, W. (1998). 형평이론에서 투입과 성과요인의 가중치와 분배원칙 선호: 한국과 미국의 비교문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1(1), 155-177.
- 박승진, 최혜라, 이훈진 (2011). 성취 지향적·관계 지향적 우울성향자의 암묵적·명시적 자존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1), 305-323.
-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 박정열, 허태균 (2006). 인상형성에 있어 사회범주 정보(우리-남)와 성격특성 정보(따뜻한-차가운)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4), 55-75.
- 배재창, 안상수, 한규석 (2004). 암묵적 연합검사를 통한 지역정체감 연구: 광주의 사례.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41-49.
- 배재창, 정재훈, 한규석 (2011). 참견하는 사람들의 상황판단과 개입동기.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p. 429.
- 배재창, 한규석 (2015). 우리성과 개별성 점화가 대인평가에 미치는 영향의 암묵적 측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4), 39-62.
- 손영미, 최상진 (1999). 심정적 대화상황분석을 통한 심정심리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pp. 13-16.
- 송은주, 이지연, 이채희 (2012). 청소년용 타인에 의한 타당화 욕구 척도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209-226.
- 양미라 (2012). 무시 행위의 의사소통적 기능 분석.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염시창, 박현주 (2005). 일반계 여고생의 완벽주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시험불안의 관계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1), 19-35.
- 오성호 (2003). 지방공무원의 성과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행정연구*, 12(4), 219-247.
- 윤혜영, 권정혜 (2011). 사회불안장애 환자의 주의편향 및 암묵적 자존감. *한국심리학회지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p. 336.
- 이종숙 (1991). 최소 집단 상황에서의 집단구분과 집단간 차별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1), 47-57.
- 장성수 (1984). 분배정의와 절차정의가 보상의 불만족에 미치는 효과. *사회심리학연구*, 2(1), 193-218.
- 장성수 (1985). 비경제적 보상이 불형평 보수분배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심리학연구*, 2(2), 261-287.
- 최봉영 (2012). 한국인에게 나는 누구인가. 경기도 파주: 지식산업사.
- 최상진 (1997). 당사자심리학과 제 3자심리학: 인간관계 조망의 두 가지 틀.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발표논문집*, pp. 131-143.
- 최상진 (2011). *한국인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최상진, 김기범 (1999a). 한국인의 심정심리(心情



- 心理): 심정의 성격, 발생과정, 교류양식 및 형태.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pp. 17-23.
- 최상진, 김기범 (1999b). 한국인의 심정심리(心情 心理): 심정의 성격, 발생과정, 교류양식 및 형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8(1), 1-16.
- 최상진, 김기범 (2000). 체면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85-202.
- 최상진, 김기범, 강오순, 김지영 (2005). 한국문화에서 대인관계 신뢰-불신의 기반과 심리적 기능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특집호), 1-20.
- 최상진, 유승엽 (1992).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6(2), 137-157.
- 최상진, 유승엽 (1995). 정의 심리적 구조에 대한 경험적 분석. 국제여성연구소 연구논총, 5(1), 107-132.
- 한규석, 최상진 (2008). 마음의 연구와 심리학: 마음의 문화심리적 분석에 바탕한 심리의 작용 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2), 281-307.
- 한규석, 최송현, 정 욱, 배재창 (2004). 한국사회에서의 사람 판단의 준거: 된 사람과 난 사람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1), 23-39.
- 허태균, 박정열, 최상진 (2002). 호오(好惡)화친(和親)차원 인상형성에 있어 집단정보(우리-남)와 중심특질(따뜻한-차가운)의 점화효과 비교.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pp. 738-743.
- Aspinwall, L. G., & Taylor, S. E. (1993). Effects of social comparison direction, threat, and self-esteem on affect, self-evaluation, and expected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5), 708-722.
- Austin, W., & Walster, E. (1974). Participants' reactions to "Equity with the World".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0(6), 528-548.
- Averill, J. R. (1983). Studies on anger and aggression: Implications for theorie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38(11), 1145-1160.
- Bargh, J. A. (1989). Conditional automaticity: Varieties of automatic influence in social perception and cognition. In J. S. Uleman & J. A. Bargh (Eds.), *Unintended thought* (pp. 3-51). New York: Guilford Press.
- Barnlund, D. C. (1975). *Public and private self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Communicative styles of two cultures*. Tokyo: Simul Press.
- Baumeister, R. F., Tice, D. M., & Hutton, D. G. (1989).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s and personality differences in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57(2), 547-579.
- Billig, M., & Tajfel, H. (1973). Social categorization and similarity in intergroup behaviou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 27-52.
- Bosson, J. K., Swann, W. B., Jr., & Pennebaker, J. W. (2000). Stalking the perfect measure of implicit self-esteem: The blind men and the elephant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4), 631-643.
- Brewer, M. B. (1979). In-group bias in the minimal intergroup situation: A cognitive-motivational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86(2), 307-324.
- Brewer, M. B., & Gardner, W. (1996). Who is this "we"? Levels of collective identity and self repres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1), 83-93.
- Campbell, J. D. (1990). Self-esteem and clarity of the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3), 538-549.
- Cappelen, A. W., Eichele, T., Hugdahl, K., Specht, K., Sørensen, E. Ø., & Tungodden, B. (2014). Equity theory and fair inequality: A neuroeconomic study.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1(43), 15368-15372.
- Chen, S., Boucher, H. C., & Tapias, M. P. (2006).

- The relational self revealed: Integrative conceptualization and implications for interpersonal life. *Psychological Bulletin*, 132(2), 151-179.
- Choi, S-C., Han, G., & Kim, C-W. (2007). Analysis of cultural emotion: understanding of indigenous psychology for universal implications. In J. Valsiner & A. Rosa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Sociocultural Psychology* (pp.318-34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vine, P. G. (1989). Stereotypes and prejudice: Their automatic and controlled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1), 5-18.
- Dijksterhuis, A. (2004). I like myself but I don't know why: Enhancing implicit self-esteem by subliminal evaluative condi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2), 345-355.
- Fazio, R. H., Jackson, J. R., Dunton, B. C., & Williams, C. J. (1995). Variability in automatic activation as an unobtrusive measure of racial attitudes: A bona fide pipelin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6), 1013-1027.
- Fazio, R. H., & Olson, M. A. (2003). Implicit measures in social cognition research: Their meaning and us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1), 297-327.
- Ferguson, M. J., & Bargh, J. A. (2004). Liking is for doing: the effects of goal pursuit on automatic 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5), 557-572.
- Fishbach, A., & Shah, J. Y. (2006). Self-control in action: Implicit dispositions toward goals and away from temp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5), 820-832.
- Gawronski, B., & LeBel, E. P. (2008). Understanding patterns of attitude change: When implicit measures show change, but explicit measures do no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5), 1355-1361.
- Greenberg, J., Solomon, S., Pyszczynski, T., Rosenblatt, A., Burling, J., Lyon, D., Simon, L., & Pinel, E. (1992). Why do people need self-esteem? Converging evidence that self-esteem serves an anxiety-buffering fun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6), 913-922.
- Greenier, K. D., Kernis, M. H., McNamara, C. W., Waschull, S. B., Berry, A. J., Herlocker, C. E., & Abend, T. A.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Reactivity to Daily Events: Examining the Roles of Stability and Level of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67(1), 187-208.
- Greenwald, A. G., & Banaji, M. R.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s, self-esteem, and stereo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1), 4-27.
- Greenwald, A. G., Banaji, M. R., Rudman, L. A., Farnham, S. D., Nosek, B. A., & Mellott, D. S. (2002). A unified theory of implicit attitudes, stereotypes, self-esteem, and self-concept. *Psychological Review*, 109(1), 3-25.
- Greenwald, A. G., & Farnham, S. D. (2000).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to measure self-esteem and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6), 1022-1038.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K.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1464-1480.
- Greenwald, A. G., Nosek, B. A., & Banaji, M. R. (2003).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 An improved scoring algorith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197-216.
- Heatherton, T. F., & Vohs, K. D. (2000). Interpersonal evaluations following threats to self: Role of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 and *Social Psychology*, 78(4), 725-736.
- Heine, S. J., Lehman, D. R., Markus, H. R., & Kitayama, S. (1999). Is there a universal need for positive self-regard? *Psychological Review*, 106(4), 766-794.
- Hui, C. H., Triandis, H. C., & Yee, C. (1991). Cultural differences in reward allocation: Is collectivism the explana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2), 145-157.
- Karpinski, A., & Steinman, R. B. (2006). The Single Category Implicit Association Test as a Measure of Implicit Social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1), 16-32.
- Kemper, T. D. (1987). How many emotions are there? Wedding social and autonomic componen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3(2), 263-289.
- Kliewer, D. (1986). A life-cycle approach to anger management training.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5(4), 30-39.
- Lemyre, L., & Smith, P. M. (1985). Intergroup discrimination and self-esteem in the minimal group paradig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3), 660-670.
- Leung, K., & Bond, M. H. (1984). The impact of cultural collectivism on reward allo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4), 793-804.
- Leung, K., & Park, H. J. (1986). Effects of interactional goal on choice of allocation rule: a cross-national stud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37(1), 111-120.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Rosenberg, M. (1962). Self-Esteem and Concern With Public Affairs.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26(2), 201-21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 Rosenberg, M., Schooler, C., Schoenbach, C., & Rosenberg, F. (1995). Global Self-Esteem and Specific Self-Esteem: Different Concepts, Different Outcom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1), 141-156.
- Steele, C. M., Spencer, S. J., & Lynch, M. (1993). Self-image resilience and dissonance: The role of affirmational resour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6), 885-896.
- Suh, E. M. (2002). Culture, identity consistenc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6), 1378-1391.
- Suh, E. M., Diener, E., & Updegraff, J. A. (2008). From culture to priming conditions self-construal influences on life satisfaction judgm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9(1), 3-15.
- Tabibnia, G., Satpute, A. B., & Lieberman, M. D. (2008). The sunny side of fairness: Preference for fairness activates reward circuitry (and disregarding unfairness activates self-control circuitry). *Psychological Science*, 19(4), 339-347.
-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Austin &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33-48).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Taylor, S. E., & Lobel, M. (1989). Social comparison activity under threat: Downward evaluation and upward contacts. *Psychological Review*, 96(4), 569-575.
- Tom, S. M., Fox, C. R., Trepel, C., & Poldrack, R. A. (2007). The neural basis of loss aversion in decision-making under risk. *Science*, 315(5811), 515-518.
- Updegraff, J. A., Emanuel, A. S., Suh, E. M., & Gallagher, K. M. (2010). Sheltering the Self From the Storm: Self-Construal Abstractness and the Stability of Self-Estee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Psychology Bulletin*, 36(1), 97-108.
- White K., & Lehman D. R. (2005). Culture and social comparison seeking: The role of self-moti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2), 232-242.
- Williams, L. E., & Bargh, J. A. (2008). Experiencing physical warmth promotes interpersonal warmth. *Science*, 322(5901), 606-607.
- Yuki, M. (2003). Intergroup comparison versus intragroup relationships: A cross-cultural examination of social identity theory in North American and East Asian cultural context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6(2), 166-183.
- 1 차원고접수 : 2016. 10. 02.  
수정원고접수 : 2016. 11. 16.  
최종게재결정 : 2016. 11. 23.

## **The Higher Vulnerability in the Weness Mode of Relationship**

**Jaechang Ba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Diliman

**Gyuseog Ha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verified whether self-esteem will be damaged more in the weness mode of the relationship than in the mode of individuality if people receive inconsiderate behavior and negative comments from their partners. In order to do this,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was created to evaluate towards oneself and another person. In Experiment 1, we examined whether the implicit attitude towards others has changed after priming weness and individuality. It was found that the interpersonal distance was reduced in the weness primed condition but was marginally increased in the individuality primed condition.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priming conditions and factor of repeated measure was significant. After activating weness and individuality relationship by priming, Experiment 2 detected changes in implicit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distance after participants were treated one of three different ways (including unequal allocation of reward, negative comments, and control condition). After the unequal allocation, participants showed a significant drop of self-esteem and a marginal increase of the interpersonal distance in the weness primed condition, but no changes were detected in the individuality primed condition. Meanwhile, after the negative comments, self-esteem was slightly increased and the interpersonal distance was greatly increased in the weness primed condition, but neither of them changed in the individuality primed condition. These results show that, in the weness mode of the relationship, participants were sensitive to their partners' negative comments and inconsiderate behaviors and it can possibly hurt their self-esteem and increase the interpersonal distance. On the other hand, in the mode of individuality, self-esteem and the interpersonal distance would not be greatly affected even if people received negative comments or inconsiderate behaviors. This study acquires significance because it verified that self-esteem can be influenced by the level of expectation of receiving consideration from others.

*Keywords : weness, individuality, self-esteem, interpersonal distance, Implicit Association Test*

## 부 록

### 상식문제와 정답

1. ‘모스경도’가 10으로 가장 단단한 광석의 이름은? (다이아몬드)
2. 프랑스 혁명시기 자코뱅당의 지도자로서, 공포정치로 유명한 사람은? (로베스피에르)
3. 제1회 월드컵 대회 개최국이자 우승국인 국가는? (우루과이)
4. 1967년 12월 29에 지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은? (지리산 국립공원)
5.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킨 이슬람 국가는? (오스만 제국)
6.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성지이며, 이슬람교 3번째 성지인 이곳은? (예루살렘)
7. 연주속도 중에서 ‘Moderato’는 ‘보통 빠르기’를 의미합니다. 그럼 ‘매우 빠르게’를 의미하는 표현은? (Presto)
8.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가장 큰 항구도시는 어디일까요? (부산)
9. 유럽의 네덜란드는 어느 국가의 식민지였는가? (스페인)
10. 미국 Major League Baseball에서 매년 최고의 투수에게 수여하는 상은? (사이영 상)
11.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의 이름은? (이승만)
12. 계속해서 많이 내리는 비, 주로 6월 말부터 7월 초에 내리는 비는? (장마)
13.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을 수상한 베를린 올림픽은 언제 개최되었는가? (1936년)
14. ‘아가베’라는 선인장으로 만들어 소금·레몬과 함께 즐기는 멕시코 전통주는? (테킬라)
15. ‘광주비엔날레’는 몇 년마다 개최되는가? (2년)
16.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위성의 이름을 모두 나열하시오. (1개: 달)
17. 인도양에서 발생하여 스리랑카, 인도, 방글라데시 등에 피해를 입히는 열대성 저기압의 이름은? (싸이클론)
18. 동계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종목의 세계기록 보유자는? (김연아)
19. 옛말에 순천에서는 인물자랑을 하면 안 되고, 별교에서는 무엇을 자랑하면 안 되었을까요? (힘 자랑)
20. 학술토론회를 의미하는 심포지움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어떤 신을 위한 제의였는데, 그 신은 누구인가? (디오니소스)